

씨 마른 벌교꼬막 살리기...30억 자원회복 프로젝트 '박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은 보성 벌교꼬막 자원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벌교꼬막 리본(Re-bone) 프로젝트'의 자원량과 서식환경 모니터링 등 효과 분석에 착수했다.

보성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2028년까지 과학적 효과 분석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자원량·서식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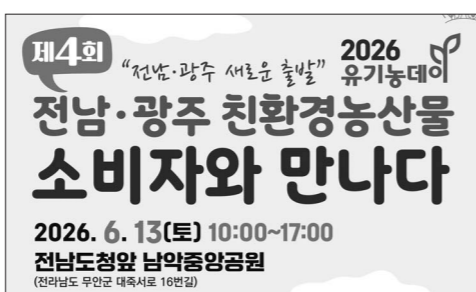
전국 꼬막 생산량이 급감하며 명맥만 이어가는 수준에 이른 가운데 전남도가 벌교꼬막 자원 회복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은 보성 벌교꼬막 자원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벌교꼬막 리본(Re-bone) 프로젝트'의 자원량과 서식환경 모니터링 등 효과 분석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벌교꼬막은 한때 전남을 대표하는 수산물로 꼽혔지만 생산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산업 기반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 실제 전국 꼬막 생산량은 2010년 5114t에 달했으나 이후 감소세가 지속돼 지난해에는 12t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생산된 꼬막은 모두 전남에서만 생산

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주요 꼬막 생산지는 보성과 순천, 장흥, 고흥이 접한 여차만과 득량만 일대다. 지자체와 어촌계가 자원 회복을 위해 매입 방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량 감소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자원 고갈로 침체한 벌교 꼬막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보성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총사업비 3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꼬막 모래와 인공유생, 중간치패를 단계적으로 살포해 산란장과 중간 육성장을 조성하고 자원량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은 지난 2월 보성군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8년까지 3년 동안 자원 회복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생육 단계별 성장률 및 생존율 분석 △2차 생산량 측정을 통한 자원 가입률 추적 △서식환경 조사 △자원 회복 효과 평가 등이다. 또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위해 최근 해양환경생물연구소를 연구구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꼬막 자원 회복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방침이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벌교꼬막은 전남 수산업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과학적 자원관리 기반을 구축해 침체한 꼬막 산업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유기농 축제 한마당...전남·광주 직거래장터 13일 개장

남약서 쌀·채소·과일 48개 부스 운영
떡매치기·장학퀴즈 등 체험행사 풍성



전남·광주 친환경농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오는 13일 남약서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남도청 앞 남약중앙공원에서 '2026 유기농데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남·광주 새로운 출발, 2026 유기농데이'를 주제로 친환경농업인과 소비자, 유관기관, 지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다 마련된다. 행사장에는 전남·광주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과 채소, 과일 등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48개 부스

경농산물 나눔 행사 등이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유기농 장학퀴즈도 열린다. 청소년 댄스 공연 등 문화행사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무안군이 후원하며 전남 21개 시군 친환경농업협회와 생협, 소비자단체 등 18개 단체가 참여해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에 힘을 보탠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데이를 계기로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건강한 먹거리 소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전남·광주 소비자들이 행사장을 찾아 우수한 유기농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2026 광주 치유농업 체험주간(농업 오픈워크)'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수확하고 향기맡고' 치유농업 체험 인기

광주농업기술센터, 시민 100명 조사...만족도 96.2점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2026 광주 치유농업 체험주간(농업 오픈워크)'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치유농업 체험주간 참가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6.2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4일부터 31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치유농업 체험주간은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명사 특강과 체험을 결합한 '수요 풀 충전', 향기온실 '향온'을 활용한 치유농업 체험, 어린이 대상 농업생태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향기식물을 직접 만지고 향을 맡는 오감 체험과 함께 라벤더, 감자, 미니오이, 토마토 등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며 농업의 가치를 체험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세부 항목 가운데 '체험 활동의 흥미·참여도'가 96.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재참여 및 추천 의향'은 96.1점, '체험 내용의 유의성'은 95.7점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부는 최근 광주 남구 '힐링가든휴'에서 (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모임 광주시지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심천심(農心天心), 여성(女心)이 함께하는 농심천심 운동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농협 광주본부, '농심천심 운동' 확산 결의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농촌 활력 증진 다짐

농협 광주본부부는 최근 광주 남구 '힐링가든휴'에서 (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모임 광주시지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심천심(農心天心), 여성(女心)이 함께하는 농심천심 운동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표적인 여성 소비자단체인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업·농촌 가치 확산 캠페인 전개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농촌 활력 증진 등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회원들은 앞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농심천심 운동을 알리는 '농촌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 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항상 농업·농촌을 응원하고 농촌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있는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고 농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농 교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로컬의 힘...2026 광주식품대전 '홍행'

관람객 4만명 몰려 '역대 최대'
호남 대표 종합 미식축제 입증
K-FOOD 글로벌 진출 교두보

로컬 미식의 브랜드화를 통해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제21회 광주 식품대전'이 매출 신장과 흥행을 모두 잡으며, K-FOOD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7일 광주관광광사에 따르면 광주시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식품대전은 전 시규모와 참관객, 상담성과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역대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시-비즈니스-로컬을 연결하는 광주형 미식산업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는 평이다. 올해 전시회는 베이커리, 디저트, 전통식품 등 로컬 미식 콘텐츠를 통한 '로컬의 힘'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궁전제과, 브랜드세븐 등 로컬 미식 브랜드를 비롯해 농심, 하이트 등 국내 대표 식품 대기업들까지 대거 참여해 △로컬 크리에이터 큐레이션 디지털 트존 △로컬 로스터리 플랫폼 △로컬푸드전 프

랜차이즈 브랜드 대전 등으로 꾸며졌다. 이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4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예매 단계부터 티켓링크 축제 분야 전국 1위를 기록한 이번 행사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오픈런 필수 코스'로 입소문을 터며 행사 내내 문전성시를 이뤘다. 단순 판매 활동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됐다. 16회에 걸친 '라이프 커머스'를 통해 참가업체의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국내 유통 및 구매담당회에는 11번가와 현대유통소매 등 26개사 62명의 대형 유통 플랫폼 MD가 참여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세계조리사연맹(WACS) 인증 '광주 셰프캘린저', 안유성 명장과 함께한 '전국 초밥왕 in KOREA'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려 관람객들에게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선사했다.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광주식품대전은 응축된 로컬의 힘을 세상에 드러내며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대표 맛의 고장임을 증명한 종합 미식 축제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지역이 K-FOOD와 글로벌 미식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